

공모지원 심사평

<공연티켓 1+1 지원 공모사업(2차 공모)>

□ 연극, 뮤지컬 분야 심사평

이번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2차 공모에서 연극, 뮤지컬 분야는 총 391건이 신청하여 358건이 선정되었다.

침체된 공연예술계를 지원하여 공연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객의 공연 관람 수요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사업 공고에서 지원 신청 자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내용에 해당하는 공연 및 단체를 제외하고 가능한 많은 공연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심의는 개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채점 전에 심의위원 간 객관적인 정보 공유와 토론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사업수행 역량을 감안하여 심의하였다.

그 외 1차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의 티켓 가격 및 좌석 수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관객과 공연단체의 이해를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 음악, 무용, 전통, 다원, 대중예술 분야 심사평

이번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2차 공모에서 음악, 무용, 전통, 다원, 대중예술분야 심사대상은 총 220건으로 음악분야 140건, 전통분야 17건, 무용분야 16건, 다원분야 47건에 대한 개별심사를 통해 3회 지원한도 초과 6건, 신청자격요건 미비 1건, 문예기금 미정산 단체 1건, 서류미비 15건 등 총 23개의 부적격 단체를 탈락시켰다.

심의기준은 예술성(20%), 티켓가의 적정성(30%), 프로그램 실현 가능성(30%), 단체활동 실적(20%)를 기준으로 총 200개 단체를 지원대

상으로 선정 완료하였다.

본 지원사업은 세월호 및 메르스 여파로 인한 침체된 공연계 종사자의 생존권을 높이는 한편 국민 문화향유 활성화등 공연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공연단체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으로 본사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신청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유사사업 시행시 사전 취지나 절차 홍보에 보다 더 역점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인기위주의 대중성 공연이나 뮤지컬등은 본 사업 혜택이 충분히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나 티켓 구매율이 낮은 클래식과 순수예술 분야는 지원효과에 대한 사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일부 신청작품은 본 사업지원을 위해 급조된 듯한 프로그램도 다수 보여 지원 사업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통해 충분한 공연제작 기간을 감안해줄 필요가 있고, 특히나 1년 단위 회계기준에 맞추다 보니 이러한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 및 개선을 건의한다.

공연티켓1+1지원사업 2차 공모 분과별 심의위원장